

# 향(鄉)제 삼현육각(三絃六角) 소고(小考)

李 輔 亨  
<文化財專門委員>

- |           |           |
|-----------|-----------|
| 1. 머 리 말  | 4. 海西三絃六角 |
| 2. 京畿三絃六角 | 5. 嶺南三絃六角 |
| 3. 湖南三絃六角 | 6. 맺 는 말  |

## 1. 머 리 말

조선조(朝鮮朝)의 궁중의례(宮中儀禮)에는 악(樂)·가(歌)·무(舞)라 하여 여러 음악(音樂)이 연주되었다. 제례(祭禮)에는 문묘제례악(文廟祭禮樂)이나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과 같은 제례악(祭禮樂)이 연주되었고 연례(宴禮)에는 보허자(步虛子), 낙양춘(洛陽春), 수제천(壽齊天), 영산회상(靈山會相)과 같은 연례악(宴禮樂)이 연주되었고 거동(舉動)이나 행차(行次)에는 여민락(與民樂) 취타(吹打)와 같은 행악(行樂)이 연주되었다. 이런 음악(音樂)들은 지금 국립국악원(國立國樂院)의 노력으로 잘 전승(傳承)되고 있으며, 또 많은 음악학자(音樂學者)들의 노력으로 음악적(音樂的) 특징(特徵)이 여러 가지로 밝혀졌다.

이에 건주어 지방관아(地方官衙)의 연례(宴禮)나 행차(行次)에서 연주되었던 음악(音樂)은 전승(傳承)이 끊어진 지 오래이고 또 이런 음악(音樂)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런 음악(音樂)의 일부가 사가(私家)의 연향(宴享)이나 행차(行次)에서 그리고 궁의 의례(儀禮)나 묘(廟)의 제향(祭享)에서 연주되는 삼현육각(三絃六角)으로 겨우 흔적을 남기고 있다. 삼현육각(三絃六角)은 지방(地方)마다 특징(特徵)이 달랐다 하나 이의 전승(傳承)이 끊어진 지방(地方)이 많으므로 삼현육각(三絃六角)의 지역적(地域的) 특징(特徵)에 관한 연구가 어렵게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아슬아슬하게 전승되고 있는 몇몇 향(鄉)제 삼현육각(三絃六角)이 어떻게 남아 있는가를 밝히고 또 삼현육각(三絃六角)의 음악(音樂)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장차 삼현육각(三絃六角)의 음악적 연구(音樂的研究)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경기삼현육각(京畿三絃六角)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京畿道)에서는 광주삼현육각(廣州三絃六角)이 뛰어났던 것 같

다. 옛부터 「오산수원삼현(烏山水原三絃)이 아무리 뛰어나도 광주삼현(廣州三絃)은 당해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다 한다. 광주(廣州)에서도 분원삼현(分院三絃)이 뛰어났다는 말이 전해진다.

광주지방(廣州地方)에서는 차석근(車石根) 서호봉(徐浩奉) 서호산(徐浩山) 김창순(金昌順) 김의순(金議淳) 이일선(李日善) 이충선(李忠善) 이달선(李達善) 오명옥(吳明玉) 김석근(金石根) 조용운(趙龍雲) 김광식(金光植) 김덕근(金德根) 등 여러 삼현(三絃)쟁이가 있었으나 대부분 작고하였다. 이일선(李日善) 이충선(李忠善) 이달선(李達善) 김광식(金光植) 오명옥(吳明玉) 등이 서울에서 활약하였으나 지금은 이충선(李忠善) 오명옥(吳明玉)만이 살아 있다. 따라서 지금 광주(廣州)에서 삼현(三絃)쟁이를 찾기 힘들다.

이일선(李日善)은 1899년생(年生)으로 경기도(京畿道) 광주(廣州)출신이며 25세 때 양계원(梁啓元)에게, 27세 때 김창석(金昌祐)에게 피리삼현(三絃)을 배웠다. 1970년경에 작고했다.

김광식(金光植)은 1910년생(年生)으로 경기도(京畿道) 광주(廣州)출신이며 15세 때부터 양경원(梁慶元)에게 피리삼현(三絃)을, 방용현(方龍鉉)에게 첫대삼현(三絃)을 배웠다. 25세 때에는 김덕진(金德鎭)께 해금삼현(三絃)을 배웠다. 1960년대에 국악예술학교강사(國樂藝術學校講師)로 있었고 1973년 무렵에 작고했다.

이충선(李忠善)은 1901년생으로 광주(廣州)출신이다. 28세무렵에 오현숙(오장산) 양계원(梁啓元)에게 피리 해금삼현(三絃)을 배웠다. 1973년에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第49號 송파산대(松坡山臺)놀이 피리 및 장고 삼현악사(三絃樂士)로 인정되었다.

오명옥(吳明玉)은 1905년생으로 광주(廣州)출신이며 해금 피리삼현(三絃)을 배웠고 1971년에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第17號 봉산(鳳山)탈춤의 해금피리 삼현악사(三絃樂士)로 인정되었다.

수원(水原) 오산지방(烏山地方)은 광주(廣州) 다음으로 삼현(三絃)이 세웠던 곳이며 이영수(李永洙), 이옥수(李玉洙), 임학준(林學俊), 장점옥(張點玉), 박용현(朴容玄), 김덕진(金德鎭), 양계원(梁啓源), 오용해(吳容海), 장(張)희성, 이장관(李長官), 오명환(吳明煥), 이용우(李龍雨), 임선문(林善文)과 같은 삼현(三絃)쟁이들이 있었으나 모두 작고하고 이용우(李龍雨) 임선문(林善文)이 수원(水原)에서 살고 있다.

이용우(李龍雨)는 1899년 생으로 경기도(京畿道) 오산(烏山)출신이며 수원(水原)에 살고 있다. 10여세 때 부친(父親) 이종하(李鍾河)에게 20여세 때 장승순에게 첫대삼현(三絃)을 배웠다.

임선문(林善文)은 1913년으로 경기도(京畿道) 오산(烏山)출신이며 수원(水原)에서 살고 있다. 10대에 장성순에게 해금삼현을 배웠다 한다.

시흥지방(始興地方)에서는 김만삼(金萬三), 김봉순(金奉淳), 정팔봉(鄭八峰), 정칠봉(鄭七峰), 정일동(鄭日童), 정길동(鄭吉童) 등이 있었고, 김포지방(金浦地方)에서는 조(趙)일흥, 조순조가 있었고, 인천(仁川)에서는 조한춘(趙漢春), 조(趙)인옥, 조만봉, 이영수(李永洙), 전태용(全泰用), 조한길(趙漢吉) 등이 있었는데 정일동(鄭日童) 조한춘(趙漢春), 전태용(全泰用), 이영수(李永洙) 등이 살아 있다.

정일동(鄭日童)은 1914년생으로 시흥(始興) 출신이며 10대에 김창호에게 피리 및 해금삼현(三絃)을 배웠다 한다.

전태용(全泰龍)은 1922년생으로 인천(仁川)출신이며 서울에 살고 있다. 20대에 김봉업(金奉業)에 해금삼현(三絃)을 배웠다 한다.

경기도(京畿道) 안산지방(安山地方)에서는 이태순(李泰淳), 이안이(李安伊), 이천이(李千伊), 이성대(李成大), 이정업(李正業) 등의 삼현(三絃)잡이가 났고 이천지방(利川地方)에서는 신승태(申勝泰), 김규봉(金奎奉), 이충옥(李忠玉), 정갈복(鄭葛福) 등이, 평택(平澤)에서는 지영희(池映熙)가, 여주지방(驪州地方)에서는 백점봉(白點奉), 김승환(金勝煥), 김덕진(金德鎭), 김광채(金光彩), 김창식(金昌植), 안황운(安黃雲) 등 삼현(三絃)잡이가 났는데 지금 살아있는 이가 없다.

지영희(池映熙)는 1908년생(年生)으로 평택(平澤)출신이며 21세때 지용구(池龍九)에게 해금삼현(三絃)을, 28세 때에는 김덕진(金德鎭)에게 해금삼현을 배웠다. 1961년에 국악예술학교(國樂藝術學校) 교사(教師)로 있었다. 1973년에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第52號 시나위 보유자(保有者)로 인정되었다가 1975년에 해제되었고 1980년에 작고했다.

과천지방(果川地方)에서는 임(林)종성, 임(林)학규, 임(林)세근, 김완근(金完根), 김석문(金石文), 오명환(吳明煥) 등이 났고 양주지방(楊州地方)에서는 허(許)선재, 김(金)무경, 김덕식(金德植), 지명천(池命千), 김완손(金完孫), 김영수(金永洙), 석거억(石巨億) 등의 삼현(三絃)잡이가 났다.

석거억(石巨億)은 1911년생이며 양주(楊州)출신으로 석성묵(石性默)에게 피리삼현(三絃)을 배웠고 1964년에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제(第)2호(號) 양주별산대(楊州別山臺)놀이 피리악사(樂士) 보유자(保有者)로 인정되었다.

지명천(池命千)은 1918년생으로 양주(楊州)출신이며 대금삼현(三絃)을 배웠고 1964년에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제(第)2호(號) 양주별산대(楊州別山臺)놀이 대금삼현악사(三絃樂士)로 인정되었다가 1970년에 사망했다.

김완손(金完孫)은 1909년생으로 양주(楊州)출신이며 해금삼현(三絃)을 배웠고 1964년에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제(第)2호(號) 양주별산대(楊州別山臺)놀이의 해금삼현악사(三絃樂士)로 인정되었고 1971년에 사망했다.

김영수(金永洙)는 1936년생으로 양주(楊州)출신이며 피리를 배웠고 1964년에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第2號 양주별산대(楊州別山臺)놀이 피리삼현악사(三絃樂士)로 인정했으나 1971년에 연령 미달로 해제되었다.

경기삼현(京畿三絃)은 피리2, 젓대, 해금, 장고, 북으로 편성(編成)되는 것이나 탈춤이나 굿판에서 피리, 젓대, 해금, 장고로만 편성(編成)되는 수도 있는데 이는 간편하게 연주하기 위함이지 원칙은 아니라 한다.

경기도(京畿道)에서는 관아(官衙)의 연례(宴禮)나 행차(行次) 말고도 사가(私家)의 연향(宴享), 승무(僧舞)와 같은 춤의 반주(伴奏), 양주산대(楊州山臺)놀이와 송파산대(松坡山臺)놀이와 같은 탈춤의 반주(伴奏), 귀인행차(貴人行次)의 행악(行樂), 대동(大同)굿과 새남과 같은 무의식(巫儀式)에서 삼현(三絃)을 쳤다 한다.

회갑연(回甲宴)에서 헌수(獻壽)에는 「대짜」에서부터 삼현도드리까지 치는 것이나 흔히 「대짜」만 친다고 한다. 승무(僧舞)와 검무(劍舞)와 같은 춤에는 긴염불(念佛), 잣은 염불(念佛), 허튼타령 굿거리를 친다고 한다, 귀인(貴人)의 행차(行次)에는 행악(行樂)으로 길군악을 쳤다 한다. 무의식(巫儀式)에는 큰 거리의 청신(請神)에, 대동(大同)굿의 들들이와 문잡이에, 또 굿의 춤에도 삼현(三絃)을 친다고 한다. 제석삼현(三絃), 구능삼현(三絃)과 같은 청신삼현(請神三絃)은 긴염불(念佛)에서 별고까지 치며, 들들이는 길군악을, 문잡이에는 취타(吹打)를, 굿의 춤에는 삼현도드리를, 긴염불(念佛), 굿거리, 허

튼타령 (또는 잣은 굿거리) 당악을 친다고 한다. 탈춤에서 춤의 반주(伴奏)에는 긴염불(念佛), 허튼타령, 굿거리를 친다.

「대짜」는 대령산(大靈山)의 속칭(俗稱)이며 상령산(上靈山) 본령산(本靈山)이라고 이르기도 한다. 4장으로 되었고 20박이며 장고는 「기덕궁---, 기덕--, 궁---, 기덕더르르르---」 하고 친다.

삼현도드리는 삼현령산회상(三絃靈山會相)의 삼현환입(三絃還入)에 해당하며 이것과 같이 6박(拍)도드리장단으로 「덩 궁 기덕 궁 더르르 궁」 하고 치지만 장수(章數)는 4장이 아니고 7장으로 되고 끝장이 들장으로 된 점이 다르다.

염불타령은 흔히 긴염불이라 부르며 국립국악원(國立國樂院)의 헌천수(獻天壽)와 같은 음악(音樂)이다. 매우 느린 6박(拍)으로 되었으며 한박(拍)을 세박자(拍子)로 꼽으면 18박자(拍子)가 된다. 장단은 「덩--, ---, 기덕 -덕, 궁--, 더르르르-, 궁--」 하고 친다. 3장으로 되었는데 3장부터 시작한다. 반복시는 1장을 쇠는 장으로부터 친다.

반염불은 긴염불의 한배가 절반 짧은 것이다.

굿거리는 굿거리장단으로 되어 있고 장단은 「덩- 기덕, 궁더르르르, 궁- 기덕, 궁더르르르」 하고 친다. 7마루로 되어 있고 4마루의 반(半)마루부터 시작한다.

허튼타령은 잣은타령장단으로 되어 있고 장단은 「덩--, 덩--, 덩- 기덕, ---」 하고 친다. 허튼가락이라 마루 수가 없다.

당악은 일명 휘모리라고 하여 매우 빠른 타령 장단인 당악장단으로 되어 있다. 장단은 「덩-, 덩--, 덩-딱, 궁--」 하고 친다.

### 3. 호남삼현육각(湖南三絃六角)

호남지방(湖南地方)에서는 태인삼현(泰仁三絃), 고흥삼현(高興三絃)이 유명했으나 태인삼현(泰仁三絃)은 끊어진지 오래이고 고흥삼현(高興三絃)도 끊어지기 직전에 있다. 전주(全州)와 영암(靈岩)의 삼현(三絃)쟁이도 그 기능을 잃었다.

#### (1) 태인삼현육각(泰仁三絃六角)

태인삼현(泰仁三絃)은 호남(湖南)에서 유명하여 전주감영(全州監營)은 물론 나라에 까지 불러 갈 정도였다고 전해지나 지금 태인(泰仁)에는 삼현(三絃)쟁이가 없다. 대금(大琴)과 단소(短簫)의 명인(名人) 전홍련(全洪連)(전추산(全秋山))이 태인(泰仁)출신인만큼 그의 삼현(三絃)이 태인삼현(泰仁三絃)이었을 것이나 지금 태인(泰仁)에는 그의 삼현(三絃)을 전승받은 이가 없고 흥덕(興德) 살던 그의 제자 편재준(片在俊)도 작고하여 제자가 없다. 전홍련(全洪連)과 편재준(片在俊)에게 배운 풍류대금(風流大琴)의 명인(名人) 김한철(金漢喆)이 만일 삼현(三絃)을 배웠다면 그를 통하여 태인삼현(泰仁三絃)의 특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나 김한철(金漢喆)이 삼현(三絃)을 치는지 아직 조사된 바 없다.

#### (2) 전주삼현육각(全州三絃六角)

전주(全州)는 감영(監營)이 있었던 곳이니 삼현육각(三絃六角)도 성하게 컸었다. 전주(全州)에서는 삼현육각(三絃六角)에 농삼현(三絃)과 민삼현(三絃)이 있었다 한다. 풍류

(風流)가야금 악사인 전주(全州) 김중환(金鍾煥)(男 계해(癸亥))에 의하면 농삼현(三絃)은 관아(官衙)의 삼현(三絃)으로 보다 우조(羽調)에 가깝고 민삼현(三絃)은 민삼현(民三絃)으로 민간삼현(三絃)을 말하며 보다 계면조(界面調)에 가까웠다 한다. 전주(全州)에 삼현(三絃)쟁이가 많았으나 지금은 아는 이가 없다 하며 피리쟁이 이정렬(李正烈)은 전주농고(全州農高)에서 춤을 가르친 바 있는 정형연(鄭刑演)男 지금 살았으면 100여세, 80여세에 작고)에게 춤과 피리를 배웠다 한다. 최종실(崔鍾實)은 초포면(初浦面)에서 대대(代代)로 삼현(三絃)을 치던 악공(樂工)집안으로 선대(先代)의 대금삼현(三絃)과 해금삼현(三絃)을 배웠으나 해외(海外)로 이주한 것으로 전한다. 이들에게 삼현(三絃)을 연주(演奏)하도록 하면 전주삼현(全州三絃)의 특집을 밝힐 수 있겠으나 이들이 음악(音樂)에 종사하도록 하는 조치가 따르기 전에는 어려울 것이다.

### (3) 고흥삼현육각(高興三絃六角)

고흥삼현(高興三絃)은 태인삼현(泰仁三絃)과 같이 호남(湖南)에서 이름이 났었고 근래에 까지 지방토호(地方土豪)의 회갑연(回甲宴)에서 쟁이들이 삼현(三絃)을 쳤다. 고흥(高興)에는 고종(高宗) 때 유명한 악사(樂士) 오성삼(吳聖三)이 있었다. 그는 고흥군(高興郡) 포두면 연두리 장수마을 태생으로 해금, 피리, 대금에 능하여 줄풍류(風流), 삼현육각(三絃六角)에 무불능통(無不能通)하였고 뛰어난 판소리고수(鼓手)이기도 하다. 고흥(高興)에는 이밖에도 점안면 살던 대금명인 최동신, 두원면 대금쟁이 박경렬, 봉래면 살던 피리 및 대금쟁이 오창용, 도양(道陽) 녹동 살던 피리쟁이 박복선, 또 피리쟁이 박방선, 두원면 살던 피리쟁이 박철근(남(男) 을사(乙巳)) 등 많은 삼현(三絃)쟁이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작고하였고 피리쟁이 박소암(朴小岩)과 박창호가 살아 있을 뿐이다.

박소암(朴小岩)(男 68 임자(壬子))은 도양읍(道陽邑) 풍암리(風岩里) 출신으로 30여세 때 고(故) 박철근에게 피리삼현(三絃)을 배웠다 한다. 박철근을 두원면 출신으로 대전(大田)에서도 살았던 바 피리삼현(三絃)을 잘 쳤으며 을사생(乙巳生)으로 지금 살았으면 78세쯤 된다고 한다. 박소암(朴小岩)은 피리삼현(三絃)을 배워 근래에 까지 다른 쟁이들과 삼현(三絃)을 쳤으며 32세 때 대금 삼현(三絃)을 독공하기도 했다 한다. 근래에 중병중(重病中)이었는데 지금 생사(生死)가 불명(不明)이다.

박소암(朴小岩)에 의하면 고흥삼현(高興三絃)은 해금·젓대·피리·장고·북으로 편성(編成)되며 피리 가운데 우두머리를 목피리라하고 목피리를 따라 부는 쟁이를 곁피리라 부른다고 한다. 삼현(三絃)쟁이 가운데 해금쟁이가 제일 큰쟁이라 하여 으뜸이며 삼현(三絃)청에 들 때 제일 앞에 들며 다음이 젓대쟁이라 한다. 앉는 순서도 해금쟁이가 가장 오른편에 앉고 다음이 젓대쟁이이며 목피리 곁피리 장고 북쟁이 순으로 앉는다고 한다. 이 고장에서는 젓대쟁이를 가로쟁이라하고 피리쟁이를 치쟁이라 한다.

고흥지방(高興地方) 삼현육각(三絃六角)에는 여민락, 염불, 도드리, 타령, 굿거리가 있고 또 행악(行樂)으로 길군악이 있다. 이런 음악(音樂)이 옛날에는 관아(官衙)의 향연(享宴)이나 사가(私家)의 큰잔치에 쓰였으나 오늘날에는 향교(鄕校) 제향(祭享), 사가(私家)의 회갑연(回甲宴), 그 밖의 경사(慶事)에 삼현(三絃)을 쳤는데 지금은 삼현치는 일이 매우 드물고 또 쟁이들이 없다고 한다.

여민락(상영산?)은 3장으로 되어 있고 4박(拍)장단이며 「덩 궁 더르르 덩」 하고 친다고 한다. 염불도 3장으로 되어 있고 6박(拍)이며 장단은 「덩 궁 딱 궁 더르르 궁」 하

고 친다고 한다. 도드리는 들가락이며 초장 7점으로 되어 있고 장단은 엮불장단을 좀 빠르게 치면 된다고 한다. 타령은 3장으로 되어 있고 4박(拍)이며 장단은 「덩--, 딱--, 궁-딱, ---」 하고 친다고 한다. 굿거리도 3장으로 되어 있고 4박(拍)이며 장단은 「덩-기덕, 궁더르르르, 궁-기덕, 궁더르르르」 하고 친다고 한다. 삼현육각(三絃六角)에 여민락이라는 말이 고흥지방(高興地方)에만 보이는데 이 여민락이 궁중변례악(宮中宴禮樂)에서 쓰이는 여민락(與民樂)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삼현령산회상(三絃靈山會相)의 본중령(本中靈)을 가리키는지 불명(不明)하다. 엮불타령 굿거리는 서울삼현(三絃)의 긴엮불(念佛), 허튼타령, 굿거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승무(僧舞)(중춤)은 엮불, 타령, 굿거리로 삼현(三絃)이 짜이며 검무(劍舞)(칼춤)는 엮불, 타령 밖에도 들가락을 쓰는데 이것을 당학이라 부른다고 한다.

고흥(高興)에는 도양읍(道陽邑) 북가야에 피리잡이 박창호(남(男) 73세?)가 있는데 박소암(朴小岩)에게 배웠으나 조금 서툴다고 한다.

#### (4) 영광삼현육각(靈光三絃六角)

영광삼현(靈光三絃)잡이는 지금 남아 있는 이가 없고 다만 전경환(全敬煥) 전경석(全敬錫) 형제(兄弟)가 구음(口音)으로 영광삼현(靈光三絃)을 기억하고 있다.

전경환(全敬煥)(男 63 경신(庚申))은 영광군(靈光郡) 묘량면 덕흥리 출신으로 지금 영광읍(靈光邑) 교천리(校川里)에 산다. 20세 때 최화집(崔化集)에게 그리고 25세 때 강성옥(姜成玉)에게 쇠를 배워 지금 상쇠로 있으나 한편 25세 때 임화중에게 피리 및 대금 삼현(三絃)을 배워 삼현(三絃)을 알고 있다. 임화중은 영광읍(靈光邑) 교천리(校川里) 살았던 삼현(三絃)잡이이었고 당시 75세가량 되었으며 지금 살았으면 130세쯤 된다고 한다. 전경석(全敬錫)(男 59세)은 전경환(全敬煥)의 아우이며 전경환(全敬煥)이 삼현(三絃)을 배울 때 같이 배웠던 것 같다. 당시 그는 21세가량 되었던 것 같다.

전경환(全敬煥)에 의하면 영광(靈光)에서는 사가(私家)의 회갑연(回甲宴)에 삼현(三絃)을 쳤으며 또 과거(科擧)에 급제했을 때에도 삼현(三絃)을 쳤고 귀인(貴人) 행차(行次)에 행악(行樂)으로 길군악을 쳤다 한다. 삼현육각(三絃六角)은 해적(해금), 젓대, 피리, 장구, 북으로 편성(編成)되면 피리잡이 으뜸은 목잡이라 하고 버금은 수성질이라 한다고 한다. 잡이들이 앉는 순서는 해적이 가장 오른쪽에 앉고 다음이 젓대 그리고 목잡이 수성질 장구 북잡이 순으로 앉는다고 한다.

영광삼현(靈光三絃)에는 본영산, 잔영산, 엮불, 도드리, 굿거리, 타령, 취타, 당악, 길군악이 있다 한다. 회갑연(回甲宴)과 같은 큰 잔치에서 잔을 올릴 때에는 본영산·잔영산과 같은 삼현(三絃)을 치는데 농삼현을 친다고 한다. 농삼현은 장시간 삼현(三絃)치는 것이 고되기 때문에 치기 쉽게 편곡된 것이라 한다. 승무반주(僧舞伴奏)에는 엮불·굿거리·타령을 치며 검무반주(劍舞伴奏)에는 엮불·굿거리·타령·취태·당악을 친다고 한다. 귀인(貴人)의 행차(行次)에는 행악(行樂)으로 길군악을 쳤다고 한다.

본영산은 3장으로 되었다 하는데 먼저 「나나나 노 나나난지나」 하고 피리가 나오면 대금이 「덜루디」 하고 돌장을 친다고 한다. 이것이 끝나면 「나니-나-」 하고 피리가 나온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3장까지 간다고 하는데 삼현영산회상(三絃靈山會相)의 4장으로 된 상영산(上靈山)과 비교하면 그 길이가 너무 짧다. 장수(章數)는 의심스럽다.

잔영산도 3장으로 되었다는데 먼저 피리가 「난지나나누, 나네-네」 하고 나오면 대금

이 「테루테」 하고 엮을 대고 나면 다시 피리가 「난지나-누, 나네-네」 하고 나오면 대금이 「테루테」 하고 댄다고 한다. 이것도 삼현영산희상(三絃靈山會相)의 엮불환입(念佛還入)보다 서울삼현육각(三絃六角)의 긴엮불(念佛)에 가까운 것으로 매우 느린 도드리(엮불장단)이다. 이것 역시 3장으로 된 긴엮불(念佛)에 비하여 짧게 되었다. 도드리는 삼현영산희상(三絃靈山會相)의 이현환입(二絃還入)과 같은 것이나 4장으로 된 삼현환입(三絃還入)에 비하면 매우 짧게 되었다.

타령은 역시 3장으로 되었다 하며 「나나, 나나, 디루디, 나나나, 니나누」 하고 내는데 삼현영산희상(三絃靈山會相)의 타령(打令)보다 서울삼현육각(三絃六角)의 타령에 가깝고 선율(旋律)은 남도(南道)굿거리처럼 많이 향토화(鄉土化)된 것이며 끝에 허튼타령으로 넘어가면 서울삼현(三絃)의 허튼 타령과 달리 육자백이토리로 넘기는 것은 더욱 향토화(鄉土化)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굿거리도 역시 3장으로 되었다 한다. 영광삼현(靈光三絃)의 굿거리는 서울삼현(三絃)의 굿거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남도삼현(南道三絃)의 굿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대로 「남도(南道)굿거리」라하여 좀 더 빠르고 선율(旋律)도 다르고 좀 더 부침새가 복잡하여 더욱 경쾌한 느낌을 준다.

취태는 검무반주로 치며 3장으로 되어 있고 처음은 「니 난지 난지나, 니난지 난지나, 나나나나」 하고 시작한다 한다. 잦은 타령과 같은 빠른 장단으로 되어있고 내드름의 선율도 달라서 서울삼현(三絃)의 행악취타(行樂吹打)와는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다.

당악은 검무반주로 치며 역시 3장으로 되었다하며 「니루나디-, 나이나디 나이나니」 하고 시작한다고 한다. 서울삼현(三絃)의 당악은 휘몰이장단의 빠르기나 영광삼현(靈光三絃)의 당악은 잦은자진몰이 장단의 빠르기이며 선율(旋律)도 서울삼현(三絃)의 당악과 다르게 되어 있다.

길군악은 행악(行樂)으로 치는 것이며 역시 3장으로 되었다 하며 느린 박(拍)장단으로 「난지나- 나나- 나-」 하고 피리가 나오며 대금이 「텔테루테 테-테」 하고 엮을 대며 피리가 다시 「나나나나」 하고 댄다고 하는데 서울삼현육각(三絃六角)의 길군악보다는 선율 많이 다르게 되어 있다.

#### 4. 해서삼현육각(海西三絃六角)

서도지방(西道地方)에서는 평안도(平安道) 용강삼현(龍岡三絃)이 제일이었다 하나 용강삼현(龍岡三絃)의 보유자(保有者)를 찾을 길이 없다. 용강삼현(龍岡三絃) 다음으로 황해도(黃海道) 해주삼현(海州三絃)이 세었던 것 같은데 해주삼현(海州三絃)은 박동신(朴東信)이 보유(保有)하고 있다. 박동신(朴東信)은 해주삼현(海州三絃)과 용강삼현(龍岡三絃)을 반반(半半)씩 보유(保有)하고 있다 한다. 그밖에 해서삼현(海西三絃)으로 김영택(金永澤)이 은률삼현(殷栗三絃)을 보유(保有)하고 있다.

##### (1) 해주삼현육각(海州三絃六角)

해주삼현(海州三絃)을 보유(保有)하고 있는 이는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第17號 강령(康翎)탈춤의 가면제작(假面製作) 및 악사(樂士)로 인정(認定)된 박동신(朴東信)이다.

박동신(朴東信)은 1909년생(年生)으로 황해도(黃海道) 해주출신(海州出身)이며 여 20세 때 장양선(張良善)에게 피리삼현(三絃)을 배웠다 한다. 1970년에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第34號 강령(康翎)탈춤 피리 악사(樂士)로 인정되었다. 장양선(張良善)은 해주(海州)사람으로 장고쟁이이며 삼현(三絃)장고를 오랫동안 쳤기 때문에 피리는 능(能)하지 못하나 해주삼현(海州三絃)을 구음(口音)으로 전바탕 부를 수 있었다 한다. 당시 장양선(張良善)은 60여세였고 지금 살았으면 120여세쯤 될 것이라 한다. 박동신(朴東信)은 장양선(張良善)에게 피리삼현(三絃)을 배운 뒤 덕튀기라는 성명(姓名) 부전(不傳)의 피리삼현(三絃)쟁이와 이호운이라는 쟁이와 함께 삼현(三絃)을 쳤다 한다. 박동신(朴東信)은 해주삼현(海州三絃)을 배운 뒤 용강삼현(龍岡三絃)을 배워 지금 박동신(朴東信)이 연주하고 있는 삼현(三絃)은 용강삼현(龍岡三絃)이 절반쯤 섞였다 한다. 박동신(朴東信)은 이렇게 4·5년간(年間) 배웠고 그 뒤 10여년간 연주하니 삼현(三絃)을 잘 친다는 말을 들었다 한다. 장양선(張良善)과는 15년간 같이 삼현(三絃)을 쳤는데 여러 지방(地方) 탈놀이 반주(伴奏), 지역(地域) 토호(土豪)들의 잔치에서 검무(劍舞), 승무(僧舞), 성진무(星辰舞), 팔선무(八仙舞), 한량무(閑良舞), 남무(男舞)와 같은 춤의 반주(伴奏)에 삼현(三絃)을 쳤다 한다. 또 노인정(老人亭)의 계(契)날에 삼현(三絃)을 쳤는데 4月10일에 열었던 해주노인정(海州老人亭) 계(契)에서는 풍류(風流), 탈춤, 한춤, 노래, 민요(民謠)의 경연대회(競演大會)가 있었다 한다.

해서삼현(海西三絃)은 서울삼현(三絃)과 마찬가지로 대피리(향(鄉)피리) 2, 대금, 해금, 장고, 북 이렇게 6쟁이로 편성(編成)된다. 그러나 잔치의 규모에 따라 쟁이의 수를 늘이고 줄이는데 삼(三)쟁이면 피리2·장구로 편성되며 사(四)쟁이면 피리2 장구·북으로 편성되며 오(五)쟁이면 피리2 장구·북으로 편성된다고 한다. 요새 서울삼현(三絃)에 북을 쓰지 않고 있으나 옛날에는 북이 흐트러지면 삼현(三絃) 전체가 못 쓰게 되므로 북을 중요시하여 북을 꼭 썼다 한다. 대피리는 서울 향(鄉)피리와 제도가 같으며 관(管)은 「관대」라 부르고 황(簧)은 「서」라 부른다. 관대에는 뒷구멍 한 앞구멍 7개가 뚫렸는데 앞구멍을 위에서 네 구멍을 짚으면 「네 가락 짚는다」고 하고 여섯 구멍을 짚으면 「여섯 가락 짚는다」고 하여 위에서부터 앞구멍의 짚는 구멍 수에 따라 몇 가락 몇 가락 잡는다고 한다고 한다. 여섯 가락이면 거의 모든 삼현(三絃)을 칠 수 있으며 허튼타령은 네 가락을 짚으며 7가락이나 8가락은 뜬음 날 때 쓴다고 한다.

해서삼현(海西三絃)에는 긴짜, 긴도드리, 잣은도드리, 염불, 타령, 굿거리, 길군악등이 있으며 봉산(鳳山)탈춤, 강령(康翎)탈춤, 해주(海州)탈춤, 등 해서(海西)탈춤의 반주(伴奏)에는 긴도드리, 잣은도드리, 타령, 굿거리를 쳤고 승무(僧舞), 검무(劍舞), 한양무(閑良舞), 남무(男舞)와 같은 춤에는 긴짜, 도드리, 염불, 타령, 굿거리를 쳤고 행진시(行進時)에는 길군악을 쳤다고 한다.

긴짜는 삼현영산회상(三絃靈山會相)의 긴영산(靈山)을 가리키며 승무(僧舞), 검무(劍舞)등 춤에 반주음악(伴奏音樂)으로 쳤으며 장단은 5박(拍)이고 각각(各各) 단(單)마루라 한다. 긴짜 장단은 「기덕, 기덕, -, 궁, -, 더르르르, -, 기덕, 기덕궁, -, 더르르르, -, 기덕, 기덕」 하고 쳤다한다.

염불은 승무(僧舞), 검무(劍舞) 등 춤의 반주음악(伴奏音樂)으로 쳤고 빠르기에 따라 긴염불, 잣은염불로 구별된다고 한다. 긴염불장단은 12박(拍) 단(單)마루이고 잣은 염불은 6박(拍) 단(單)마루라 한다. 긴염불장단은 「기덕- 궁- 기덕 기덕, 기덕 더르르- 궁 궁」 하고 치며 잣은염불 장단은 「기덕--, 궁--, 딱-딱, 궁-궁, 더르르르--, 궁--」 하



고 친다고 한다.

도드리는 봉산(鳳山)탈춤 해주(海州)탈춤 등 탈춤의 반주(伴奏)와 승무(僧舞), 검무(劍舞)등 춤의 반주에 두루 쓰는 삼현(三絃)이라 한다. 빠르기에 따라 긴도드리 잣은도드리로 빠르기만 다를 뿐 모두 6박(拍)장단이며 5마루로 되었다 한다.

타령은 봉산(鳳山)탈춤 은률(殷栗)탈춤 등 탈춤과 승무(僧舞), 검무(劍舞) 등 여러 춤의 반주에 쓰인다 한다. 타령에는 느진타령, 잣은타령, 타령시나위가 있다하며 타령시나위만은 탈춤에만 쓰이는 허튼가락이라 한다. 타령장단은 「덩--, 덩--, 덩-딱, 궁-딱」 하고 친다고 한다.

굿거리의 승무(僧舞), 검무(劍舞)와 같은 춤과 봉산(鳳山)탈춤, 강령(康翎)탈춤과 같은 탈춤에 두루 쓰인다 한다. 해서삼현(海西三絃)의 굿거리에는 탈춤굿거리와 미알굿거리와 같이 탈춤에 쓰이는 굿거리와 승무(僧舞), 검무(劍舞)에 쓰이는 굿거리가 있다 한다. 승무(僧舞)에 쓰이는 굿거리는 좀 느린 한배이며 느린 4박(拍)(8분(分)의 12박자(拍子))이며 13마루라 한다. 장단은 「덩-기덕, 궁 더드러 더더, 덩-기덕, 궁 딱 딱」 하고 친다 한다. 탈춤굿거리는 춤굿거리 보다 약간 빠르고 장단은 「덩-기덕, 궁 더르 르르, 덩-딱, 궁 딱 더르」 하고 친다 한다. 미알굿거리는 탈춤의 미알과장(科場)에서 치는 삼현(三絃)으로 탈춤굿거리 보다 사뭇 빠르다 한다. 장단은 「덩-딱, 궁 딱 딱, 덩-딱, 궁 딱 딱」 하고 친다고 한다.

길군악은 행악(行樂)으로 치는 것이며 서울행악(行樂)의 길군악과 같은 것이나 좀 느리다. 단마루로 되어있고 피리가 한마루를 치면 대금이 여음으로 단마루를 댄다고 한다. 장단은 「덩 덩 덩 딱 더르 르르-」 하고 친다고 한다.

지금 해서(海西)탈춤에 삼현(三絃)을 치는 이는 박동신(朴東信) 외(外)에도 지관용(池官用)과 양소운(梁蘇云)이 있다. 지관용(池官用)은 황해도(黃海道) 연백(延白)출신으로 본디 소리꾼이나 박동신(朴東信)에게 피리를 배워 해주(海州) 피리삼현(三絃)을 친다. 양소운(梁蘇云)은 1923년생(年生)이며 황해도(黃海道) 해주출신(海州出身)이다. 해주(海州)에서 장양선(張良善)에게 소리, 춤, 삼현장고(三絃長鼓)를 배웠다. 1967년에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第17號 봉산(鳳山)탈춤의 미알할미역(役)의 보유자(保有者)로 인정되었다. 박동신(朴東信)과 해주삼현(海州三絃)을 칠 수 있는 유일한 보유자(保有者)이다.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第17號 봉산(鳳山)탈춤의 악사(樂士)로 인정된 오명옥(吳明玉)은 봉산(鳳山)탈춤의 반주음악(伴奏音樂)을 연주하고 있으나 그는 본디 경기광주삼현보유자(京畿廣州三絃保有者)이다.

## (2) 은률삼현육각(殷栗三絃六角)

은률삼현(殷栗三絃)을 보유(保有)하고 있는 이는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第61號 은률(殷栗)탈춤의 악사(樂士)로 인정된 김영택(金永澤)이다.

김영택(金永澤)은 1921년 임술생(壬戌生)으로 황해도(黃海道) 은률군(殷栗郡) 일도면(一道面) 장통리(長通里)에서 낳았다. 15세 무렵에 김순명(金淳明)에게 소리를 배웠고 20세 무렵에 은률(殷栗)에서 역시 김순명(金淳明)에게 피리삼현(三絃)을 배웠다 한다. 김순명(金淳明)은 김영택(金永澤)과 한 마을에서 살았으며 피리 밖에도 젓대 해금, 장고에 두루 능하여 삼현육각(三絃六角)을 잘 쳤다하며 가야금 풍류(風流)도 잘 하였다 한다.

김순명(金淳明)은 당시 32세쯤 되었고 지금 살았으면 90여세쯤 되었을 것이라 한다. 당시에 은률(殷栗)에는 김순명(金淳明)의 아우 김순선(金淳善)도 피리, 해금, 장고로 삼현(三絃)을 쳤고 김영화(金永華)도 피리삼현(三絃)을 쳤으나 모두 김순명(金淳明)만 못하였다 한다.

김영택(金永澤)에 의하면 은률삼현(殷栗三絃)은 피리 한쌍, 젓대, 깡깡이(해금), 장고, 북으로 편성(編成)된다고 하며 이 가운데 피리의 선생을 목쟁이라 불렀다 한다. 김영택(金永澤)에 의하면 은률(殷栗)에서는 대가택(大家宅) 회갑연(回甲宴)과 같은 큰 잔치에 삼현(三絃)을 쳤고, 귀인행차(貴人行次)에 행악(行樂)을 쳤고, 승무(僧舞), 검무(劍舞), 삼현(三絃)춤, 탈춤과 같은 춤의 반주(伴奏)로 삼현(三絃)을 쳤다 한다. 회갑연(回甲宴)에서 잔을 올릴 때에는 긴영산, 중영산, 긴염불, 잣은도드리, 보완사타령, 잣은타령과 같은 삼현(三絃)을 쳤다 하며, 승무(僧舞)를 출 때에는 긴염불(念佛) 잣은염불(念佛)을 쳤고 검무(劍舞)를 출 때에는 보완사타령을 치다가 잣은타령으로 넘겼다 한다. 삼현(三絃)춤은 일명 타령춤이라고 이르기도 하는데 장삼을 입고 꼬갈을 쓰고 탈춤사위로 추는 허튼춤이라 하는데 반주(伴奏)는 불림타령을 친다. 은률(殷栗)탈춤에는 불림타령, 잣은타령, 굿거리, 들장단, 만장단, 보완사타령과 같은 삼현(三絃)을 쳤다 한다. 김영택(金永澤)에 의하면 긴영산 중영산은 7박(拍)이라 하나 분명치 못하다.

긴염불(念佛)은 승무(僧舞)의 반주에 치는데 3장으로 되었고 7박자(拍子)로 되었다 한다. 장고는 「덩--, 궁--, 딱--, 궁--, 딱-닥, 따르르르르---」 하고 친다고 하는데 서울삼현(三絃)의 긴염불(念佛)과 비교하면 제6박(拍)이 좀 늘어져 두박(拍)으로 꼽아서 6박자(拍子)를 7박자(拍子)로 꼽는 것 같다. 잣은염불(念佛), 긴도드리, 잣은도드리는 긴염불(念佛)장단을 자주 치는 것이라 한다.

보완사타령은 검무(劍舞)와 탈춤에서 사자놀이에 쓰이며 4박자(拍子)로 되어 있고 장단은 「덩--, 덩--더, 덩-덕, 궁--」 또는 「덩--, 덩-덕, 덩궁덕, 궁--」 하고 친다고 한다.

불림타령은 삼현춤, 탈춤에 쓰이며 4박자(拍子)로 되어 있고 장고는 「덩--, 덩-기, 덩-덕, 기--」 하고 친다고 한다. 선율(旋律)은 수심가(愁心歌)토리가 질다.

잣은타령은 검무, 탈춤, 삼현춤에 두루 쓰이는데 허튼타령이라고도 부른다. 불림타령과 같이 장단을치나 좀 빠르게 친다고 한다. 선율(旋律) 또한 수심가(愁心歌)토리가 매우 질다.

굿거리는 탈춤 등 춤에 쓰이며 4박(拍)으로 되어 있고 장단은 「덩-기덕, 덩더러구, 덩궁덩, 덩더러구」 하고 치는데 장고 구음(口音)은 「덤불산, 돈닷다, 덩불산, 돈닷다」 하고 부른다고 한다.

## 5. 영남삼현육각(嶺南三絃六角)

영남삼현(嶺南三絃)가운데 통영삼현(統營三絃)이 이름이 있었다. 통영(統營)에는 아직 몇몇 짚이들이 남아 있어 삼현(三絃)이 전승되고 있다. 영남지방(嶺南地方)에도 고장마다 두루 삼현(三絃)을 쳤던 것이지만 통영(統營) 밖에는 영남(嶺南)에서 삼현(三絃)치는 이를 찾을 길이 없다. 진주(晉州)에도 옛날에는 삼현(三絃)이 있어서 북춤(무고(舞鼓)), 검무(劍舞), 포구락(拋毬樂) 등 여러춤에 긴영산(靈山) 삼현(三絃)도드리, 염불(念佛), 타령(打令), 굿거리와 같은 삼현(三絃)을 쳤었으나 지금은 진주삼현(晉州三絃)이 끊어져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第12號 진주검무(晋州劍舞)의 반주(伴奏)에는 서울삼현(三絃)을 녹음한 테잎을 쓰고 있고 그것도 긴 영산(靈山)은 쓰지 않고 있다.

#### (1) 통영삼현육각(統營三絃六角)

통영(統營)은 지금 경상남도(慶尙南道) 충무시(忠武市)로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이 있었던 곳이라 관아(官衙)의 의례(儀禮)와 사가(私家)의 향연(享宴)에 삼현(三絃)을 많이 썼던 탓인지 통영삼현(統營三絃)이 이름이 있었다.

통영(統營)에는 노덕규(盧德奎), 이승근, 노덕근(盧德根), 박학채, 노창조, 박재술, 주봉진(朱鳳珍), 박경삼(朴景三), 박경규(朴景奎), 이갑조(李甲祚)와 같은 삼현(三絃)쟁이가 있었고 지금은 박복률(朴福律), 김진규(金振奎), 이치조(李致祚), 유덕환, 이기숙(李基淑), 유동주 등이 삼현(三絃)을 치고 있다.

이승근은 통영(統營)출신이며 가야금풍류(風流)와 병창(併唱)을 잘 했고 첫대삼현(三絃)을 쳤다 한다. 지금 살았으면 110여세가 된다고 한다.

노덕규(盧德奎)는 통영(統營)출신이며 피리 삼현(三絃)을 잘 하였고 지금 살았으면 100여세쯤 된다고 한다.

노덕근(盧德根)은 통영(統營)출신이며 피리 삼현(三絃)에 능하였고 지금 살았으면 100여세쯤 된다고 한다.

박경삼(朴景三)은 거제(巨濟)출신이며 37세부터 통영(統營)에 살았다 한다. 아버지 박학채에게 배워 피리삼현(三絃)을 잘 하였다 한다. 지금 살았으면 81세가 되며 63세로 작고했다 한다. 그의 아들 박복률(朴福律)이 피리삼현(三絃)을 한다.

주봉진(朱鳳珍)은 1891년생(年生)으로 통영(統營)에서 나왔다. 36세 때 이승근에게 첫대삼현(三絃)과 풍류(風流)를 배웠고 가야금, 양금, 단소풍류(風流)도 익혔다 한다. 1968년에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第21號 승전무(勝戰舞)의 대금삼현악사(三絃樂士)로 인정되었고 1976년에 사망하였다.

이갑조(李甲祚)는 1901년생으로 통영(統營)출신이다. 17세 때 노덕규(盧德奎)에게 피리삼현(三絃)을 배운 뒤 첫대 해금도 익혔다. 1968년에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第21號 승전무(勝戰舞)의 피리 및 장고 삼현악사(三絃樂士)로 인정되었고 1974년에 사망하였다.

박경규(朴景奎)는 1903년생(年生)으로 통영(統營)출신이며 34세 때 노덕근(盧德根)에게 피리삼현(三絃)을 배웠다 한다. 1961년에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第21號 승전무(勝戰舞)의 피리삼현악사(三絃樂士)로 인정되었고 1970년에 사망했다.

박의성(朴義成)은 1918년생(年生)으로 통영(統營)출신이며 30세 때 노덕규(盧德奎)에게 해금 및 피리삼현(三絃)을 배웠다.

박복률(朴福律)은 1953년생(年生)이며 거제(巨濟) 출신이다. 20세 때 통영(統營)에서 박경삼(朴景三)과 노덕근(盧德根)에게 첫대와 피리삼현(三絃)을 배웠다. 1976년에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第21號 승전무(勝戰舞) 피리삼현악사(三絃樂士)로 인정되었다.

이치조(李致祚)는 1921년생이며 통영(統營)출신이다. 이갑조(李甲祚)와 주봉진(朱鳳珍)에게 20여세 때 대금삼현(三絃) 및 장고삼현(三絃)을 배웠다. 1976년에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第21號 승전무(勝戰舞) 대금삼현악사(三絃樂士)로 인정되었다.

박복률(朴福律)에 의하면 통영(統營)에서는 충무공(忠武公) 탄신제, 사가(私家)의 회갑연(回甲宴), 공덕인(公德人)의 제사(祭祀), 귀인(貴人)의 행차(行次), 대가택(大家宅)의 상여 나갈 때, 승전무(勝戰舞)나 검무(劍舞)와 같은 춤을 출 때, 큰 무의식(巫儀式)을 행할 때 삼현(三絃)을 쳤다한다. 통영삼현육각(統營三絃六角)은 피리, 젓대, 해금, 장고, 북을 쓰는바 피리는 왼잡이 끝잡이 들을 쓰고 젓대도 왼잡이 끝잡이 들을 쓰며 해금은 잡이가 없어 쓰지 못한다고 한다. 좌(左)편부터 북 장고 피리 젓대 해금 순으로 앉는다고 한다.

통영삼현(統營三絃)에는 거상, 길군악, 길연주, 엮불, 타령, 잣인타령, 굿거리가 있다 한다.

충무공(忠武公) 탄신제, 회갑연(回甲宴)에서 잔 올릴 때 공덕인(公德人)의 제사(祭祀)의 청신(請神)에는 거상을 치며, 귀인행차(貴人行次), 대가택(大家宅) 상여행차, 제사(祭祀)의 송신(送神)에는 길군악을 치며, 승전무(勝戰舞)의 반주(伴奏)에는 엮불, 타령, 굿거리를 치며 검무(劍舞)의 반주(伴奏)에는 엮불, 타령, 잣인타령을 치고 무청신(巫請神)에는 길연주를 친다.

거상은 거상(擧床)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거상악(擧床樂)은 잣은한늬을 치는 것이지만 통영삼현(統營三絃)의 거상에는 무슨 곡(曲)을 친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거상」이라고 이르고 있다. 박복률(朴福律)은 거상이 3장(章)으로 되었다 하고 장단은 무박(無拍)이고 장고잡이가 거상선율(旋律)을 듣고 피리가 「나노니-」 할 때 장고가 「기덕 기덕」 하고 치고 한참 있다가 피리가 「노나나나노니-」 할 때 장고가 「궁」 하고 치고 피리가 「나나노나-」 할 때에는 장고가 「기덩 더더르르르」 하고 치며 다음 젓대가 엮을 댈 때에는 치지 않고 있다가 엮의 끝에 「나나-」 할 때 장고가 「궁」 하고 친다. 고법(鼓法)과 음악(音樂)으로 봐서 경기삼현(京畿三絃)의 대짜 해서삼현(海西三絃)의 긴짜와 같이 본중영(本中靈)을 치는 것으로 보인다. 박복률(朴福律)은 영산가락이라고 한다.

길군악은 서울삼현(三絃)의 행악(行樂)인 길군악(軍樂)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인(貴人)의 행차(行次)와 대가택(大家宅) 상여(喪輿)의 행차(行次)에 썼고 또 제사(祭祀)에서 청신송신(請神送神)에 그리고 무의식(巫儀式)에서 혼백(魂魄)을 모셔 드릴 때 길군악을 친다고 한다.

박복률(朴福律)은 길군악이 4장이고 피리 3박(拍), 대금 5박(拍) 이렇게 5박(拍)이라고 말하고 있다. 음악(音樂)을 들어보면 피리 가락이 나올 때에는 장고가 「기덕--, --궁, 기덩--, --궁, 기덩--, --궁」 하고 치며 젓대가 엮을 댈 때에는 「기덩--, --궁, 기덩--, --궁」 하고 치기 때문에 5박(拍)보다 10박(拍)으로 꼽을 수 있다.

엮불은 승전무(勝戰舞), 검무(劍舞)의 반주(伴奏)에 쓰이는데 이것은 느린도드리장단(긴엮불장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서울삼현(三絃)의 긴엮불(念佛)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박복률(朴福律)은 엮불이 5박(拍)이며 피리가 5박(拍)을 셋, 모두 15박(拍)을 치면, 젓대가 5박(拍)에 엮을 대어 모두 20박(拍)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장고 가락을 들어 보면 「기덩--, 궁--, 기덕-떡, 궁--, 떠르 르르 르르, ---」 하고 타점(打點)은 5점(點)이나 박자(拍子)는 6박자(拍子)이다. 경기삼현(京畿三絃)의 긴엮불, 고흥삼현(高興三絃) 및 해주삼현(海州三絃)에서 엮불이 6박자(拍子)인 것으로 봐서 통영삼현(統營三絃) 엮불도 6박자(拍子)로 꼽을 수 있다. 엮불은 4장(章)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경기삼현(京畿三絃)의 엮불과 영광삼현(靈光三絃)의 엮불이 3장으로 되었다 하는 것과 비교하면 장수가 다른 것이 미심적이다.

타령은 승전무(勝戰舞), 검무(劍舞)에 쓰이며 3분박(分拍) 중 느린 4박자(拍子)이며 장고는 「덩--, 궁--, 기덕-기덕 궁 딱 더르」 하고 친다. 박복률(朴福律)은 타령이 4장으로 되었다고 말한다. 그가 말한 타령의 장수(章數) 또한 의문스럽다.

굿거리는 승전무(勝戰舞) 끝에 쓰는데 3분박(分拍) 중 느린 4박자(拍子)이며 장고는 「덩-기덕, 덩-기덕, 궁-기덕, 궁다르르르」 하고 친다. 박복률(朴福律)은 굿거리도 4장(章)이라고 말하고 있다.

## 6. 맺는 말

조선왕조(朝鮮王朝) 말기(末期)까지 서울과 지방의 관아(官衙)의 연례(宴禮)와 사가(私家)의 의식(儀式)에 삼현육각(三絃六角)을 쳤으나 지금은 삼현육각(三絃六角)이 거의 전승이 끊어져 버렸다. 지금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는 향(鄕)계 삼현육각(三絃六角) 가운데 조금이나마 전승(傳承)되고 있는 것을 꼽자면 광주(廣州), 양주(楊洲), 수원(水原), 시흥(始興) 등지(等地)에서 전승되었던 경기삼현(京畿三絃), 고흥(高興), 영광(靈光) 등지(等地)에서 전승되었던 호남삼현(湖南三絃), 해주(海州), 은률(殷栗) 등지(等地)에서 전승되었던 해서삼현(海西三絃), 통영(統營) 등지(等地)에서 전승되었던 영남삼현(嶺南三絃) 등(等)이 있는 바 이들 삼현(三絃)의 보유자(保有者)를 통하여 향(鄕)계삼현육각(三絃六角)의 전승실태(傳承實態), 악기편성(樂器編成), 연주계기(演奏契機) 악곡(樂曲)의 종류(種類)와 구성(構成) 및 장단(長短)에 관하여 대충 살펴보았다.

삼현육각(三絃六角)의 전승실태(傳承實態)를 보면 대부분의 보유자(保有者)들이 작고 하였거나 기능을 잃었지만 이 음악(音樂)들의 일부가 승전무(勝戰舞), 송파산대(松坡山臺)놀이, 양주산대(楊洲山臺)놀이, 강령(康翎)탈춤, 봉산(鳳山)탈춤, 은률(殷栗)탈춤, 승무(僧舞)와 같은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반주음악(伴奏音樂)으로 쓰이고 있고 보유자(保有者)들이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반주악사(伴奏樂士)로 인정되어 겨우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반주음악(伴奏音樂)으로 채택되지 못한 호남삼현(湖南三絃)은 전승 위기에 있다.

향(鄕)계 삼현육각(三絃六角)의 악기(樂器)는 어느 고장이나 해금, 젓대, 목피리, 곁피리(바침피리), 장고, 북으로 편성(編成)되는 것이나 지금은 악사(樂士)들이 없어 이대로 갖추어 삼현(三絃)을 치는 고장이 없다.

향(鄕)계삼현육각(三絃六角)은 지방관아(地方官衙)의 연향(宴享), 귀인(貴人)의 행차(行次), 사가(私家)의 잔치, 굿 및 제의식(祭儀式), 춤의 반주에 쓰였으나 지금은 춤의 반주와 약간의 의식(儀式)에 쓰일뿐 거의 이 음악(音樂)이 연주되는 일이 없다.

향(鄕)계삼현육각(三絃六角)의 악곡(樂曲)의 종류(種類)는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상영산(上靈山) 등(等) 삼현영산회상(三絃靈山會相)과 길군악, 긴염불(念佛), 잣은염불(念佛), 허튼타령(잣은타령) 굿거리와 같은 것들이며 그 장에 따라서 취타, 당악과 같은 것을 쳤다. 회갑연(回甲宴)의 헌수(獻壽)에는 거상악(擧床樂)으로 상영산(上靈山)과 같은 삼현영산회상(三絃靈山會相)을 쳤고 귀인(貴人)의 행차(行次)에는 길군악을 쳤으며 춤의 반주에는 염불(念佛), 타령, 굿거리, 당악을 쳤다.

이런 음악(音樂)의 장단(長短)은 모든 고장의 삼현육각(三絃六角)에서 비슷하게 치지만 박수(拍數)를 꼽는 법이 고장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장수(章數)나 마루 수(數)는 제대로 꼽히지 않아서 분명히 대지 못하거나 잘 못 말하고 있기도 하다. 악곡(樂曲)의 선

율(旋律)은 지방마다 어느 만큼 향토화(鄉土化)되었고 어떤 것은 그 지방(地方)의 민요(民謠)토리가 섞인 것도 있다.

향(鄉)제 삼현육각(三絃六角)은 고장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고장마다 고유의 삼현(三絃)이 전승되어야 하나 그 음악(音樂)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전승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다행히 대부분의 보유자(保有者)들이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반주악사(伴奏樂士)로 이전되었으므로 이들에게 반주음악(伴奏音樂) 밖에도 그 고장에 전승되는 삼현육각(三絃六角)을 전승하도록 조치를 하면 삼현육각(三絃六角)이 전승될 수 있다. 다만 호남삼현육각(湖南三絃六角)은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반주(伴奏)로 쓰이지 못하고 있으니 별도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삼현육각(三絃六角)의 음악적(音樂的) 연구(研究)는 지금 미개척지로 남아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